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6호 [주제 제 26080호] 주제 107 (2018)년 7월 25일 (수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25호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25호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인 황병서동지,
한광상동지,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인민무력성 제1부상 륙군
대장 서홍찬동지와 공장의
책임인원들이 맞이하였다.

군인들의 식생활문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맛좋고 영양가높은 티운풍
을 많이 만들어 군인들에게
먹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525호공장에
티운풍종균생산공정을 새로

꾸리고 액체로 된 종균을 만들어 부대,
구분대들에 공급할데 대한 파업을 주시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송고한 의도
를 높이 받들고 조선인민군 제525호공장
에서는 자체의 기술력으로 티운풍액체
종균생산설비 39종에 57대를 제작하여

년산 60t능력의 티운풍액체종균생산공정
을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하는 자랑찬 성과
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먼저
공장의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
보시였다.

공장이 종합적인 식료가공공장으로



전면된 자랑찬 행로속에는 우리 군인들에게 공급할 기초식품문제를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며 생의 마지막까지 어려차례나 찾아오시여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며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자속이 어리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인민군 군인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송고한 뜻을 언제나 잊지 말고 생산계획을 항상 지표별로 넘쳐 수행함으로써 장군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 병사들에게 가닿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식료공장들에서는 식품의 위생안전성을

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질 좋은 티운풍액체종균을 공업적으로 대량생산할수 있는 공정을 현대적으로 꾸려놓은것은 커다란 성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원료준비공정, 풍우립공정, 액체종균제양공정, 균체미과 및 회식공정, 포장공정 등 모든 공정이 흐름선화되고 생산장의 무균화를 철저히 실현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기초식품직장, 정미직장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3년 전에 공장을 개건현대화하였는데 보고 또 보아도 정말 손색이 없다고, 모든 생산공정들의 자동화, 무인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자랑할만 한 공장이라고, 오늘 이렇게 불의에 공장에 와보았는데 설비들이 만가동하며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있는것을 보니 기분이 대단히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을 수리화, 원림화하고 구내포장도 잘하였다고, 식료공장답게 공장안팎을 깨끗하고 위생문화적으로 일들하게 거두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주인다운 일본새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2 면 으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25호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발성을 적극 발양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시켜 생산을 계속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생산에서 계

성의 열쇠는 과학기술과 종업원들의 정신

에 발동에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속 자랑찬 성과를 이루함으로써 앞으

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고 생산공

로도 맛좋고 영양가높은 여러가지 식료

수령님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통한 교양

들을 군인들에게 더 많이 보내주며 나

정의 자동화, 무인화, 무균화를 위한 대

드거운 사랑을 암으로 공장에 어버자례

사업과 당정책 학습을 더욱 강화하고

나 찾아오시여 한없는 밀음을 안겨주시며

높은 목표를 내걸고 투쟁의 나길에 대한

라이 식료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선구자

적역할을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걸 읊 걸을 이 끌어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

를 드리면서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

을 철저히 관철하여 기초식 품생산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갈 불리는

결의에 충만되어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함경북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결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지지도하면서 주신 업무를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어왕천발전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어왕천발전소

발전설비 건설을 완수한 후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어왕천발전소

전승의 위대한 역사를 최후 승리에로 이어가리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수령님의 탄원한 군사사상과 주체전법, 험활한 전략전술과 승리이며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은 대체로 국립과 백성을 위한 투쟁입니다.』

조국강산에 전승의 축포가 더져오기를 때로부지 징장 6·5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전화의 불길속을 헤쳐온 전쟁로동과 우리 인민의 뇌리에는 위대한 전승의 해 1953년이 산화처럼 새겨져있다.

주체42(1953)년 7월 27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 470호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축하한다』에서 3년간의 거칠게 치열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생겨난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시었으며 이날 저녁 수도 평양에서 1·24분의 토로써 일제 사격으로 각각 2·4발의 축포를 쏘며 대한 명명을 하달하였다.

다음날에는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와 그 요인을 밝히시는 우리 수령님의 역사적인 방송연설 『전전현장결례에 즐을하여』가 누리에 울려져서졌다.

아버지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반란민의 역사에서 외래침범자들을 빠져나와 영웅적투쟁을 전개한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그러나 이번 조국해방전쟁에서와 같이 전위 인민의 단결투쟁으로 강대한 적에게 결정적타격을 주고, 나는 술리를 생겨하여본적은 일제가 없었으며 오늘처럼 우리 인민이 국제적위신이 높고 전세계인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동장을 받아온 때는 없었다고 언급하였다.

여전백승의 경철의 명성이 인위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은 온 나라를 승리의 감각과 환희로 더욱 세차게 끌어번지게 하였다.

우리는 승리했다!

온 우주를 풍靡로 안은것처럼 가슴부풀어 오르는 이 부름을 외우며

가요 『우리는 승리 했네』의

인민은 그 어디서나 이해에 데여난 가요 『우리는 승리 했네』를 부르고 또 불렀다.

승리, 이 말과 더불어 이 나라의

인민은 전쟁의 나날만을 추억하지 않았다. 수십년간 혈강장을 우러 강

토에서 세력권쟁탈을 위한 전쟁을 벌였을 때에 강해한 군대를 가지지 못한 것을 우러로 인민이었다. 강

도 일제가 우러 나라에 침략무력을 풀이밀었을 때에는 보잘것없는 희생

대로 맞았다가 끝내는 망국노가 된 페의 용어를 입고 있는 우리 인민이었다. 불이 오면 산촌에 뿐은 피여도 나라를 빼앗긴 인민의 가슴속에 불이 것들지 않았다.

그런 인민이 주체42(1953)년 7월에는 온 세상을 향해 우리는 승

리하였다고 격조높이 노래하게 되었으며, 『용성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

이것은 세계적인 특대사변이었으며 20세기의 신화였다.

이 작곡의 1절에는 『조국의 자유

와 독립』이라는 구절이 있다. 조국이 얼마나 커종친한가 우러 인민은

일제의 식민지노에 떠나온 때에

세워 기였고 그 깊은 뜻을 향해 5년간

간의 생활을 통해 온갖으로 계

쳤다.

당국에서 나라는 주인으로 국제

인 운명전환을 한 인민에게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은 곧 자신의 운명이었다. 여기에 침략자들이 전쟁의 불

지를 지른 다음날 어버이 수령님께서 하신 역사적인 방송연설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에 정한

나라가 불도 가능이었지만, 당시에는

인민군용사들앞에서는 적의 아상인 서울뿐 아니라 금강과 대전의 땅에 걸친 물들은 단백처럼 무너져내

리고 적들의 침략적기들이 가을날

의 땅도 무일수 없다며 투격속에

는 치열한 전투였다.

전기가 끊어지면 케이블을 손으로

돌려서 부기를 생산한 군수물류부문

로 동지들의 두생모습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의 전조자들로 새겨지고 한

치의 땅도 무일수 없다며 투격속에

는 치열한 전투였다.

전쟁로병들을 친선금과도 비

교수 없는 어중간한 보배로 여기

며 전사적이었던 희생과 희생을

포조하고 예술선동대 활동을

을 적극 떠밀어 주고 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표병들이 하

제27군선정으로부터 장수

에 이르기까지 각별한 품질로

포조하고 예술선동대 활동을

을 적극 떠밀어 주고 있다.

우수도구로 예술로운 청년들은

예술로 예술로 예술로 예술로 예술

로 예술로 예술로

